

한국의 건축가 9 - 김중업(完)

Korean Architect, Kim Chung-Up

김중업 건축의 해석 - 꿈과 시와 낭만의 건축

조인철 / (주)정림건축 Q.C부 팀장, 건축사
by Zho In-Choul

◇ 연재 목차 ◇

(계재월)

1. 이희태 (9503~9505)
2. 김정수 (9506~9508)
3. 김수근 (9509~9512)
4. 정인국 (9601~9605)
5. 박길룡 (9607~9608)
6. 박동진 (9609)
7. 강 윤 (9610~9612)
8. 이천승 (9701~9702)
9. 김중업 (9703~9707)

1. 김중업 건축의 바탕
- 김중업의 일상
2. 대담내용
- 김중업 건축과 샤머니즘
3. 대담내용
- 김중업과 르꼬르뷔제
4. 김중업 건축의 해석
- 꿈과 시와 낭만의 건축
5. 김중업 건축의 해석
- 김중업 건축의 어휘

1. 김중업의 건축사상

1) 샤머니즘의 건축

어떤 건축가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현물로 나타나 있는 작품만 가지고 시도하는 것은 원래 작가가 갖고 있던 의도나 생각을 제대로 파악 할 수 없고 평론가의 취향에 따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중업은 건축가에게는 시대를 꿰뚫어 보는 세계관과 우주관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¹⁾ 어떤 건축가가 그의 일생동안 작품활동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했던 세계는 과연 어떤 것이었느냐 하는 것은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이다. 그러나 모든 건축가에게 작품의 전반을 지배하는 세계관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김중업을 포함하여 몇 안되는 건축가에게만 이러한 세계관이 존재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어떤 건축가에게 자신의 건축을 통해서 구현하고자하는 세계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일관되게 그의 작품들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건축가 김중업의 세계관은 어떤 것일까?

필자가 김중업과의 대담²⁾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의 주제로 꺼낸 것이 그의 종교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한 질문으로 시작한 이유는 종교의 본질이 곧바로 세계관과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였다. 건축가 김중업은 집안에서 불교를 믿어왔으므로 자신의 종교는 불교에 가깝다고 얘기한다. 그는 이와 덧붙여서 불교 속의 샤머니즘³⁾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에 있어서 샤머니즘의 가치⁴⁾를 높이 평가하고 있

1) 송효상, "김중업과 그의 현대적 고전주의", (공간), 1986.3.통권224호, p.44.

건축가는 시대를 꿰뚫어보는 세계관과 우주관이 있어야 합니다.

2) 조인철, "한국의 건축가 - 김중업", (건축사), 서울:대한건축사협회, 1997.4.통권336호, p.84.

3) 위의 책, p.8.

일단 샤머니즘이란 것은 말아야, 일단 뭐인가 하면, 무속적인 전통을 말하는 건데, 무속적인 전통이란 것은 소위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를 놓고 보더라도 불교가 일단은 순수불교라기 보다는 재래종교와 합치된 불교란 말이야. 그러니까 절에 가보더라도 칠성각이 있잖아. 칠성각 같은 것은 사실 불교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는데 우리나라 원시종교인 샤머니즘과 직결되어 나가고 또 더우기 단청의 상황을 보더라도 맨처음 단청을 칠했을 당시에는 굉장히 원색적이고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굉장한 바이탈리티(Vitality)라고 할까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거든. 그런 것이 이제 샤머니즘하고 불교하고 합치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 샤머니즘이라는 것을 놓고 볼 적에는 한 개의 문화적인 가치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어.

4) 최일남, "건축가 金重業-展示行政이 식막한 都市만든다", (신동야), 1984.10, p.406.

제일 아쉬운 것은 샤머니즘을 몰아낸 것입니다. 동네마다 장승과 칠성각 또는 마을의 신을 모시는 장각들이 있는데 지금은 모두 없어졌습다. 그것들은 문화의 큰 증거인데도 말입니다. 군수에게 물으면 미신이라고 해서 중업에서 없애라고 없앴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비문화적인적인 행동입니까. 그래서 저는 새마을 운동을 X마을 운동이라고 말했다가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다. 그는 샤머니즘을 하나의 신화(神話)로서 이해하고 있으며 샤머니즘 속에는 엄청난 바이탈리티가 내재되어 있고 그것은 하늘(天)과 땅(地)과 인간(人)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다. 김중업은 오랜 공백기를 마감하고 1979년 귀국하여 자신의 건축방향에 대하여 “샤머니즘적인 미스테리를 집어넣고 싶다⁵⁾”고 했다. 좀더 거창하게 말하면 그가 건축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것은 샤머니즘과 같은 신화(神話)의 구현으로 현대인의 병든 인간성을 회복시켜보자는데 있다고 해석된다. “크나 작으나 확실적인 무성격의 방들로 에워싸인 현대인들은 그림으로써 엄청난 악들을 되풀이하고 있다. 다시는 아우슈비츠의 집단학살을, 히로시마의 참극을 빚어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병든 현대인들에게 차분히 진실을 위한 삶의 뜻을 되새길 수 있는 아름다움 또한 그자체의 알뜰한 공간들의 되찾음이 시급하다. 어떠한 공간일망정 자신의 독특한 언어를 자신있게 이야기하려 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⁶⁾”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작품중에는 신화를 주제로 성공한 경우가 많이 있다. 샤머니즘은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신화로서, 예술의 대상으로서는 훌륭한 주제라고 생각된다. 김중업은 건축가로서 샤머니즘을 자신의 건축 주제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그것의 성공여부를 떠나 주제를 선택하는 안목에서부터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건축가 김중업이 자신의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땅에 대한 해석이다. 김중업의 대지에 대한 해석은 엘리야데(Eliade)의 성(聖)과 속(俗)에 나타난 원시인의 사고⁷⁾와도 통한다. 김중업은 원시시대의 샤만의 세계관과 같이 자연도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땅자체는 어떠한 것을 짊어지고 싶은 의욕이 있다. 그렇다면 건축가는 그 의지를 살려서 그위에 한 개의 일회성의 꿈을 집어 넣어주는 거란 말이야. 건축이라는게 한 개의 인간의 꿈을 살려두는 작업이야. 그렇다면 그일회성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대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지하고도 어울려야 된다.⁸⁾” 그의 작품중에서 이러한 그의 대지에 대한 해석은 자신이 이야기했듯이, 민족대성전, 육일빌딩(박시우치과), 서산부인과 등에 잘 나타난다. 그렇다면 땅과 자연이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건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어떠한 차이를 만들어내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김중업은 여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한다. “그러므로서 말하자면 수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는데 개체로서의 생명을 불어넣어야 된다 이런 것을 나는 강조하고 있는거지. 그게 나의 건축관의 하나지.⁹⁾” 땅의 의지와 맞아 떨어져야 하고 건축 또한 살아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건축론의 중심이다. 땅의 의지와 맞게 한다는 것은 땅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가 된다. 땅의 의지에 맞춰 설계한다는 것은 소위 콘텍스추얼리즘(Contextualism)에서 말하는 주위환경의 콘텍스트에 맞는 형태, 규모, 색채 등으로 계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김중업의 경우는 대지주위의 맥락을 읽어내는데 있어서 이러한 인위적인 환경(건물)보다는 자연환경(산, 강)의 의지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본다. “가장 나은 하나의 해석에 도달하기 위하여 건축가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조형언어를 구사하게 된다. 자신의 언어란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느끼고 있는 지식도, 체험도, 감정도 이에 속한다. 풍부한 자기언어를 구사하기 위하여 지리하게 정진하는 것과 또한 자신이 쌓아올린 지혜가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발상이 아닌 꿈틀 되어진 결실이어야 한다.¹⁰⁾”

살아있는 건축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것은 표정을 가지는 것으로서 “인간이 던져주는 강렬한 사인이다”는 것이다. “건축이란 어떠한 공간이건 자신의 일정한 언어를 갖고 이야기하려 하고 자신의 남과 다른 의식을 전달하고자 함은 그 속에 남과 다른 삶을 담고 있는 까닭이다.¹¹⁾”

일단 건축물이 거리에 들어서면 건축가가 의도하든 하지않든 어떤 표정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건축물을 보는 사람이 그표정을 읽어내고 의미를 부여하려는 본

5) 김원, '건축가의 프라이드, 社會的意味', (공간), 1979.3, p.43.

6) 김중업, '홍명조씨 대에 대하여', (김중업, 건축가의 빛과 그림자), 서울:열화당, 1984.4, p.242.

7) Eliade, (The Sacred and the Profane(聖과 俗: 종교의 본질)), 李東夏(譯), 서울:학민사, 1983, p.125.

고대사회의 종교적인간의 관점에 우리 자신을 위치시킬 때 당장 깨닫게 되는 것은, 세계는 그것이 신들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이고, 세계 그자체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의미하고,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한다는 사실이고, 세계는 말없는 것도 불투명한 것도 아니며, 목적이나 의미를 갖지 못한 활동력 없는 존재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종교적 인간에게 있어서 코스모스는 '살아 있고', '말을 한다.' 코스모스가 살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것의 거룩함을 증거한다. 왜냐하면 코스모스는 신들에 의해 창조되었고, 신들은 우주적 생명을 통해 그들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기 때문이다.

8) 조인철, 앞의 책, p.84

9) 위의 책, p.85.

10) 金重業, '建築創作의 活性化와 建築家의 使命', (건축사), 1979.6, 통권124호, p.31.

11) 김중업, '홍명조씨 대에 대하여', (김중업, 건축가의 빛과 그림자), 서울:열화당, 1984.4, p.242.



김중업의 르꼬르뷔제의 사무실에 근무하던 시절 (뒤줄 중간의 안경 쓴 이가 김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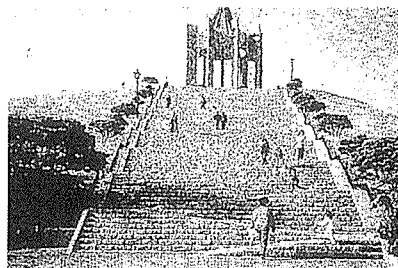


그림1 : 부산총훈탑에 대한 일반인의 좋은 평가 (동아일보 독자투고란에서 발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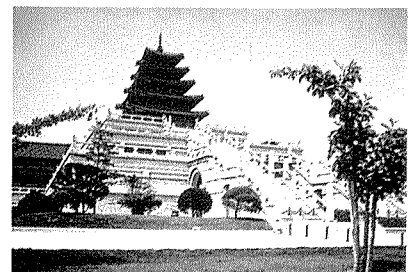


그림2 : (구)국립중앙박물관 (현재 국립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음)

능을 갖고 있다는 편이 옳을 것 같다. 사실 건축가가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이 어떠한 표정으로 받아들여질까 하는 것에 대하여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기분 좋은 표정의 건축물(그림1)과 무표정하거나 기분 나쁜 표정의 건축물을 구분하기는 쉽다. 건축가 김중업은 자신의 건축을 통해서 이시대의 삶을,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자 했다. “태고적에 이루어 놓은 동굴들, 그속에 숨한 기억들이 새겨진 라스코동굴의 벽화”가 지나는 인간의 뜻은 너무나도 크다. 고구려의 문묘들 속에 우리 조상들의 뜨겁고 힘차고 멋있는 삶에의 찬가를 되새겨 봐야 하리라.¹²⁾”

“건축만 안다고 해서 다 건축할 수는 없어요. 건축에 대한 테크닉이나 손재간 등은 오히려 자기에게 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삶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거죠.”¹³⁾

2) 건축에 있어서의 전통

건축에서의 전통논의는 아주 진부한 주제가 된 지 오래다. 전통논의를 촉발시킨 주요작품을 살펴보면 국립중앙박물관(그림2) 현상공모(1965)에서 부여박물관 왜색시비(1967), 전주시청사(1983) 등을 들 수가 있는데 김중업은 주한 프랑스 대사관 작품에서 전통계승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보여준다. 이후 많은 사람들은 존경반 시기반으로 이작품에 대하여 언급해왔다. 김중업 또한 자신이 이룬 높은 차원의 전통계승에 대하여 만족하고 이러한 작품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전통계승에 관한한 프랑스대사관을 능가하는 작품을 만들지 못했다. 더욱 분명하게 말하면 김중업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그작품을 능가하는 것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또다시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훌륭한 작품성에 대하여 논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지금까지 우리의 전통논의의 방법에 있어서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려고 한다. 주한 프랑스대사관 이후에 많은 선배 건축가들이 자신도 단번에 그러한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고 시도했으나 실패하게 되는데, 그러한 결과의 중요한 원인은 중간과정을 거치지 않는데 있다고 본다.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기초적인 작업이고 건축가로서는 이미 갖추어져 있어야 할 요건입니다. 그리

고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개개 건축가들의 자신의 문제일거고 만약 교과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사람은 지극히 행복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 인간이고, 그러니까 그과거에 대한 반발이 생기는 거고, 그반발이야말로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¹⁴⁾

여기서 전통을 받아들이는 중간과정이란 모방의 과정을 이야기한다. 건축에서의 전통계승의 시도는 기와지붕의 모방, 목구조의 모방 등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김중업과 같은 거장이 나타나지 않는 한 우리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과 같은 작품을 더이상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 김중업¹⁵⁾, 김수근 그리고 이후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 건축가 김석철씨도 전통계승은 절대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우리 건축가들은 자의든 타의든 이러한 모방에 의한 전통건축의 익힘 내지는 숙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제 다시 전통계승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 한다면 소위 말하는 아주 질 낮은 전통의 직접적인 모방에 의한 계승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 기와지붕을 씌우는 것에 대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 전통건축물의 모사가 전통의 파괴라는 식의 주장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기와지붕을 그대로 얹고 목구조를 그대로 뚫는 것도 전통계승의 작품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단지 주한 프랑스대사관보다는 전통계승에 있어서 차원이 낮은 작품이며, 과도 기적 작품으로 평가하면 되는 것이다. 전통건축에 대한 제대로된 모방은 각종 잡지에 소개된 외국건축가의 작품을 어쭙잡게 베끼는 것보다는 좋은 시도라고 본다. 김중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진주 문화회관(그림3)의 경우 자신도 인정¹⁶⁾ 할만큼 직설적인 기와지붕을 얹은 설계로 현상설계에 당선한 적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이제는 좀더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기와지붕에 목구조를 그대로 인용하고도 훌륭한 작품으로 승화된 작품을 전혀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림4).

12) 김중업, 앞의 책, pp.242~247.

13) 송효상, “김중업과 그의 현대적 고전주의”, (공간), 1986.3.통권224호, p.44.

14) 김중업의, “建築 傳統을 繼承하는 길은?”, (공간), 1967.1.p.13.

15) 김중업의, 앞의 책, p.6

16) 지나간 文化의 形像을 그대로 模倣한다는 것은 傳統을 繼承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破壞하는게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림3 : 진주문화회관 현상설계당선작의 정면도(전통건축의 어휘를 직설적으로 도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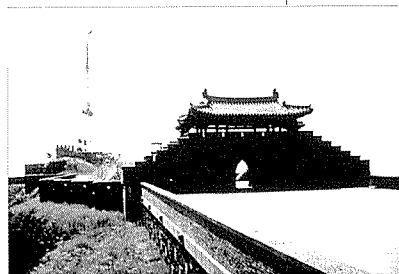


그림4 : 흑성산 종계탑(건축환경연구소 광장)



그림5 : 중소기업은행 본점(외장의 검은색이 아주 인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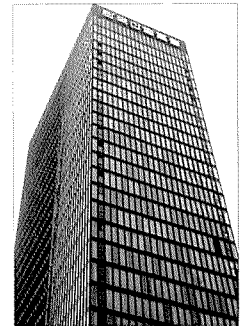


그림6 : 삼일로 빌딩(서울의 랜드마크)

3) 기능과 형태

김중업의 작품을 이야기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능과 형태가 상호관련성이 없고 시공성이 배려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중업의 작품중에서 건물의 기능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다. 명보극장의 지붕이 바람¹⁷⁾에 날려갔다든지, 계단에 머리가 부딪친다든지¹⁸⁾ 서산부인과의 경우 너무 형태를 중요시 하다보니 건축주¹⁹⁾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하는 불평을 할 정도였다는 등의 얘기가 있다. 그렇다면 김중업은 건축을 한 것이 아니라 조각을 한 것인가? 김중업은 근대건축이 건축의 주제로 삼았던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form follows function)'에 대하여 동조하지 않았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으로 생각한다. "20세기의 기능이 21세기에 와서도 같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건축은 한세기, 두세기에 걸쳐 남는다 이겁니다. 건축은 역사속에 존재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기능이란 무엇이나, 건축가는 그기능을 나름대로 주는 거지, 어떤 기능이라는 개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폼(form)이라는 것도 인간이 이제까지 빚어 놓은 모든 것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이제까지의 그것이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지든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루어지든 또 한국에서 이루어지든 그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데이터요 한 개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에 맞게 어떤도구를 어떻게 쓰던간에 자기를 제대로 표현하면 됩니다."²⁰⁾ 기능이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쉽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형태를 기능에 따라서 결정지운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김중업의 주장이다. "결국은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것은 조형성 때문이지 기능 때문에 남는 것이 아니다."²¹⁾ 사실 우리의 주변에서도 하루가 다르게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물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현대건축에서는 이미 이러한 기능주의건축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있었고 이러한 사조에 반기를 들고 발생된 것이 포스트모던건축이나, 해체주의건축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한때 그의 작품을 놓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의 건축태도가 기능이나 기술을 무시한 설계라는 식으로 그의 작품을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의 우리 건축계의 사정을 살펴보면, 필자가 본지 3

월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당시 설계분야에 진출한 사람중에는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은 손꼽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김중업은 당시로서는 정규대학의 교육을 받았고 더 우기 마쁘다 하더라도 사무실과 르코르뷔제 사무실에서 실무경험을 쌓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중업보다도 건축의 기능적 측면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몇이나 되었을까에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디자인이 기능과는 동떨어진 그림으로 이해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단지 근대건축에서 디자인의 주제로 삼았던 기능은 그에게 있어서 형태를 결정하는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기능은 설계상의 고려조건 중 하나였고 다른 중요한 조건들에 밀려 무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표현이 옳을 듯하다. "...인간에게 건축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추위를 막아준다, 비바람을 막아준다, 잠자리를 제공한다는 등의 기본적인 사실이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무엇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지 모르게 어떤 사안을 제대로 던져주어야만이 건축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 아닌 건축가의 문제는 한 개의 기능인 내지 기술자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또 건축 아닌 건축은 건물이지 건축이라고 표현 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는 이런 것을 앞으로도 정확히 얘기하고 또 정확한 길을 걸어야만 될 거예요."²²⁾ 건축설계의 과정이 끊임없는 선택과정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면, 건축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설계에 임하느냐하는 것은 그결과에 있어서 엄

16) 송효상, 『建築家 金重業』, (공간), 1986.3, p.41.
 그것은 當選案이죠. 현상설계를 통한 작품이었는데 일단은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고, 그후에 의도적인 것을 만들어 보지는, 현실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實施案은 사실 많이 달라졌지만 나의 대표작이라고 보진 않아요. 하지만 진주라는 지역성을 상당히 고려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17) 안병의 외, 『흔저 꿈꾸던 건축가, 우리가 그를 끌어안지 못했다』, (PA), 1997.1, p.12.
 골목 등 디테일을 보면 그래도 이분이 디테일을 뭔가 제대로 배우고 온 느낌이 느껴요. 그러나 명보극장이 태풍에 벗겨진 사건을 보면 김중업선생은 컨셉은 좋았지만 엔지니어링 백업이 안되어있던 것 같아 아쉬움이 큼니다.
 18) 위의 책, p.11.
 명보극장을 설계하실 때 었습니다. 시공은 대림에서 했는데 제 친구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친구 말을 들으니, '야, 김중업씨 설계 순 엉터리야!' 그러더라고요. 그래 제가 무슨 소리냐고 묻고 쫓아갔지요. 가봤더니 2층 객석 발코니를 올라가는데 출입구에 머리가 부딪치는 거예요. 이상하게 밀어지지 않더라고요. 저야 그랬지만 그런 것만 나오면 기성세대들은 자꾸 그를 평가절하했 습니다.
 19) 안병의 외, 『건축가 김중업선생 추모좌담회』, (건축가), 1988.5, p.28.
 ... 서산부인과 설계할 때인데, 건축주가 하루는 보지고 해서 갔더니,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인데 돈을 벌어서 집을 짓고 싶어서 김선생한테 맡겼는데 도시 이거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20) 김원, 앞의 책, p.40.
 21) 안병의 외, 『건축가 김중업선생 추모좌담회』, p.27.



그림7 : 암사동의 선사주거(지붕과 벽의 구분이 없고, 땅에 붙어 있는 상태)



그림8 : 강화도 고인돌(림센 역도 선수가 땅에 붙은 지붕을 들어 올린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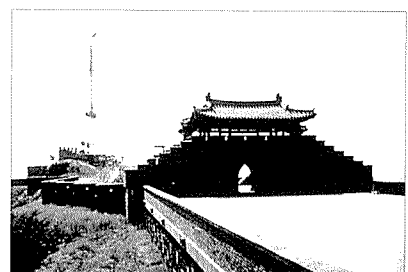


그림9 : 주한 불린서 대사관의 지붕(전통건축의 사뿐한 지붕의 계승)

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건축가마다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잣대만을 갖고 그기준에 미달하면 다른 어떤조건들이 탁월하더라도 그작품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여기서 필자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형태가 주는 감흥이 중요하므로 기능을 무시해도 좋다는 주장을 할려는 것이 아니다. 좋은 건축이나, 아니냐는 건축가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건축관이 어떻게 일관되게 자신의 건축에서 성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건축가 김중업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삶에 대한 표현이었으며, 생의 찬가였고, 미래의 삶에 대한 비전의 제시²³⁾이었던 것이다.

김중업의 작품중에서 '한국미술관'의 경우는 처음 주택으로 출발하여, 대사관으로, 또다시 미술관으로 용도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기능이 변화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좋은 건축으로 남아 있다.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경우도 앞으로 어떠한 용도로 기능이 바뀔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은 건축으로 남아있을 것이 분명하다. 구제주대학본관의 경우도 몇몇 물지각한 사람들에게 의하여 아깝게 사라지긴 했지만 국내의 어느 건축가의 작품과도 바꿀 수 없는 좋은 건축이었다. "그의 많은 작품중에서 가장 큰 걸작은 제주대학본관과 주한 프랑스대사관이다. 그것은 온갖 힘을 기울인 환상과 꿈과 기술을 써서 실현한 조형의 시였다. 제주대학본관에서 볼 수 있는 공간개념의 환상적 처리와 즐거운 유희정신은 주변공간과의 완전한 합일속에 인간의 능력이 기록할 수 있는 하나의 상황을 보이고 있다."²⁴⁾

2. 김중업의 건축어휘

1) 기둥

건축가 김중업은 건축에 대한 의뢰를 받게 되면 대지를 답사하고 대지가 원하는 배치를 결정한 후 기둥세우기를 시작한다. 기둥은 수직구조체로서 수평구조체인 지붕을 지지하고 있다. 건축가 김중업에게 있어서 기둥은 단순한 구조물이상의 상징적의미를 갖고 있다. 기둥은 지붕 아래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뻗어나가 하늘로 치솟는다. 아니 하늘이 이기둥을 타고 내려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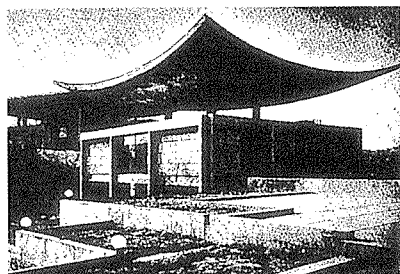


그림9 : 주한 불란서 대사관의 지붕(전통건축의 사뭇한 지붕의 계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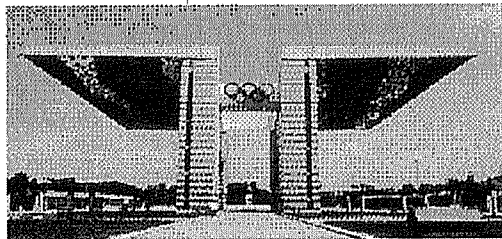


그림10 : 올림픽상징조형물(새와 문을 주제로한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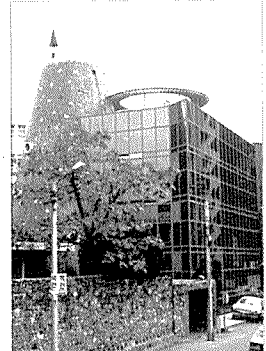


그림11 : 옥일빌딩(옥상에 잠시 내려앉은 UFO)

는 표현이 더욱 옳은 표현일지도 모른다. 하늘의 빛이 지붕을 뚫고 기둥을 타고 내려온다. 건축가 김중업은 지붕 아래 묻혀서 답답한 느낌을 주는 기둥을 과감하게 해방시켜주고 있다. 김중업 건축에서의 기둥은 가능기는 하지만 하중에 눌려서 좌굴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혀 하중과 관계없이 그냥 수평재에 대한 수직재로서 존재하며 선돌처럼 서 있을 뿐이다. 따라서 김중업의 건축어휘로서의 기둥의 형태는 십자형이 되기도 하고 '한국교육방송'에서처럼 조형적형식의 벽체로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사머니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중심으로서의 기둥이며,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변환시키는 지팡이요, 하늘과 인간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통로인 것이다. 한국미술관의 기둥이 그러하고, 서강대학본관의 기둥이 그러하고, 굴뚝이 그러하다. 을지로의 '중소기업은행본점(그림5)' 과 삼일로에 있는 '삼일빌딩(그림6)' 은 도시를 하나의 건축으로 보는 그의 도시관(都市觀)에 따르면 건물자체가 중심을 지키는 하나의 선돌이고 기둥이다.

2) 지붕

김중업의 건축에 있어서 지붕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김중업의 건축에서의 지붕은 지붕의 원래 기능인 지붕 아래를 바라보며 아래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상단으로서 하늘과의 만남을 더욱 중요시한다. 김중업의 건축에서 지붕의 구조는 2중구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2중구조를 취하면서도 그는 자신의 표현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지붕의 기능은 하부지붕이 감당하고 있으며 김중업이 취하고 있는 독특한 어휘로서 시적인 감흥을 담당하는 것이 상부지붕이다. "건축에 있어서의 지붕이 지니는 뜻은 너무나도 크다. 땅과 하늘 사이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자연인 건축이 부드럽게 때로는 모질게 하늘과의 부단한 접촉을 꾀한다. 옛부터 동양에 있어서 스카이라인을 이룬 지붕들이 그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유연했던가 말이다... 이지붕이 갖고

22) 김원, 앞의 책, p.38.

23) 김중업 외, "建築 傳統을 繼承하는 길은?", p.15.

미래의 도시라는 건 한 개의 건축으로 생각되어야 한다는게 나의 지론입니다. 그런데 그 space를 창조하는게 건축가이고 도시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역시 건축가라야 한다는 것은 옳은 말입니다. 다시말해서 건축가는 30, 40년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실을 조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게 되는거죠.

24) 이경성, '김중업의 작품세계', 서울:신세계기획, 1971년 10월 19일~24일.

있는 품격있고 단아하면서도 집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효과도 우리들 전통속에 오래도록 순화해 내려온 석탑, 부도, 정자들의 현대적인 처리이어야 한다. 우리의 하늘이 그얼마나 멋이 있기에 그에 바치는 뜨거운 찬가로서 이지봉은 창조되고 또한 살벌해져가는 소위 현대주택에 대한 강한 항의로서 탄생하리라.²⁵⁾

김중업의 작품에서 지봉의 표현은 전통건축의 지봉선에 대한 독특한 해석에서 시작된다. "경복궁에 가서 경회루 앞에서 있다고 상상해 보잔 말아야. 그러면 경회루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봉의 양을 가지고 있어요. 볼륨(Volume)이라는 게 굉장히 큰 거라구.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전체 비례로 봐서 지봉이라는 것이 지나칠 정도로 말하자면 큰 비중을 갖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봉이 가볍게 보이지 인간을 압박한다던가 하는 느낌이 들지 않지. 소위 하늘에 띄워주고 싶은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단구. 그것을 제대로 표현한 것은 한민족밖에 없어. 전세계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지봉을 사뿐히 띄워 올렸다'는 것은 대단한거라구. 디자인에서나 또 인간에게 주는 감동에 있어서나 상징성에 있어서나 그러한 것은 현대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더 좋은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야 한다는 그런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불란서대사관을 보더라도 그 관저(官邸)의 지봉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크지만 그것이 큰 것이 말하자면 한 개의 양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사뿐히 하늘에 치켜올린 그런 기분'이 들게 하려고 내가 애쓰고 있는 거지.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의 전통의 지봉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야.²⁶⁾ 그러니까 김중업에게 있어서 한국 전통건축의 지봉은 일본인들이 해석한 여성적이고 가냘프고 슬픈 곡선²⁷⁾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김중업의 지봉선은 사뿐할 뿐만아니라 강렬한 힘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선으로 새로 태어난 것이다. 김중업은 어렸을 때에 접한 고구려의 힘찬 선에 대하여 여찬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고구려의 힘찬 선들, 신라의 유연한 선들, 이조자기들이 고려침자가 풍기는 귀족성 고요속에 숨은 생생한 힘이 깃들여 있다."²⁸⁾ 김중업의 작품에서 그가 즐겨 사용하는 경사로와 같이 곡선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김중업 자신이 독자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르꼬르뷔제에게서 건축에서의 곡선의 활용방법에 대하여 사사 받은 후 꾸준히 노력하여 자신의 건축어휘로서 발전시켰다고 보는 것이 옳은 평가라고 생각한다. 원시수혈주거(그림7)에서 땅에 붙어 있던 지봉은 고인돌(그림8)에서 땅에서 분리되어 일어서고 김중업의 작품에 와서 모포(그림9)를 던져놓은 듯이 사뿐하게 하늘에 띄워지며, 새의 날개(그림10)로, 비행접시(그림11)로 완전히 날 수 있게 되었다. 김중업의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의 2중구조형식의 지봉은 일회성의 작품으로 보편적인 어휘로 발전되지 못했다고 하는 평가들이 많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 바람직한 형식으로 받아들여진 어렵지만 지붕위에 지봉을 만드는 형식이나 매스(mass)의 구성에 있어서 지붕과 몸체를 어떠한 형식으로든 구분하려는 시도는 그후로 유행처럼 번져서 거의 보편적인 건축어휘가 된 듯

하다. 지붕이나 기둥외에도 김중업 자신만의 독특한 건축어휘로 보기는 어렵지만 물에 비치는 건축으로써 의도적으로 건축과 호수(인공연못)를 결합시키는 것도 그가 즐겨 사용한 건축어휘이다.

3. 후기

지난 5개월 동안 온통 김중업선생에 대한 생각으로 시간을 보냈다. 갑작스럽게 원고집필 요청을 받고 설계사무실의 머슴생활속에서 장기간 이러한 일을 겸한다는 것이 무척 힘이 들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을 변명삼아 원고 내용중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지 못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 두고 싶다. 3월호 내용중에서 김중업선생이 강제출국 당하여 프랑스에서 체류하는 상황에서 르꼬르뷔제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권희영씨의 제보에 의하여). 이외에도 부실한 부분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향후 주한 프랑스대사관 현상설계 당시 참여한 프랑스 건축가의 명단과 그들의 제출작품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으면 한다.

필자가 이번 기회에 원고를 정리하면서 보람있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많은 사람이 그동안 그의 프랑스로의 외유가 자의나, 타의나에 대한 의구심에 대하여 필자가 참고한 문헌중 '최일남과의 대담내용'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충분한 이유로 타의에 의해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몇 가지 사실들 중에서 건축가는 물론 작품으로 자신을 이야기하고 평가를 받게 되지만, 이것에 못지 않게 살아생전 지내온 행실도 한사람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을 알아야겠다는 것이다. 김중업은 여러 문헌에서 언급되었듯이 여러가지 부당성 때문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던 '국회의사당의 설계'에 참여함으로써 건축가의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 결과로 건축가협회에서 제명당한 적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서 보여준 그의 행동은 한국건축계를 이끌어 가는 거장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었음이 인정해야 할 것 같다. 건축가 김중업은 그의 지나온 인생과 그의 작품을 귀감으로 후배들이 좋은 건축을 위해서 매진 해주길 바라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다음호부터는 나상기 선생에 대해 건축대 김문덕교수가 2회에 걸쳐 집필, 연재될 예정이며, 이어서 배기형선생에 대해 안하대 원장수 교수가 3회에 걸쳐 집필, 연재될 예정이다 -

25) 김중업, "홍명조씨 댁에 대하여", pp.242~247.

26) 조인철, 앞의 책, p.86.

27) 야누기 무네요시, "조선의 미술", [조선과 예술], 서울·범우사, 박재삼출판, 1995, 6, 범우문고 082, p.42.

...선이 조선예술의 거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특징임을 지적했다. 민일 형태와 색채의 요소가 기기에 결핍되어 있는 것을 새삼 지적해낸다면 나의 견해는 더욱더 바른 기초를 얻어내는 셈이다... 조선에서는 다채로운 옷은 거의 볼 수 없는가... 늙은이도 젊은이도,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한결같이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흰옷은 언제나 상복(喪服)이었다. 쓸쓸하고 무덤 많은 마음의 상징이었다. 백성은 흰옷을 입는 것으로써, 항상 상복을 입고 있는 셈이다. p.145

나는 조선의 예술, 특히 그오소라고도 볼 수 있는 선(線)의 미는 실로 그들의 시령에 굽주린 마음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 아름답게 길게 길게 끄는 조선의 선은 확실히 유연하게 호소하는 마음 그것이다... 눈물에 넘치는 여러 가지 하소연이 이선에 위탁되어 있다. 그들은 그 쓸쓸한 마음과 무엇인가 끌리는 괴로운 정을 아름답고도 절 어울리게 길고 우아한 선에 함유시킨 것이다.

28) 김중업, 앞의 책pp.242~247.